

다툼·차별심 멈추고 평화·공영을 **봉축법어 요약**



◆천태종복지재단 정책실장 서용순님이 4일만에 찾은 임형진군을 안고 있다.

정신지체 임형진군

천태복지재단, 미아찾아주기 첫 결실

다시 가족 품에 안겨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아찾아주기센터가 개소 4개월만에 처음으로 미아를 찾아주는 결실을 맺었다.

천태종 미아찾아주기센터는 4월 27일 전용전화(02-579-5518)를 통해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에서 임형진 군(7·정신지체 1급)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미아찾아주기센터는 즉시 김기태 사무국장 등 2명의 직원을 파견, 가족 상담과 사고 경위 파악, 미아 사진 확보 등에 나서는 한편, 강북구 17개 동사무소와 파출소, 장애인복지관 등에 전단지들을 배포했다. 종단 홈페이지와 복지관 게시판에 입 근의 인사착의와 사진 등을 게재하고 소재파악에 나선 끝에 4일만인 4월 30일 입 근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냈다.

천태종 복지재단 정책실장 서용순님은 입 근의 가정을 방문해 미아 발생 예방 등에 대해 가족과 담소를 나눴다. 천태종 총무원장 윤석조님도 가족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임형진 군 소재파악 나선지 4일만에 개가 이 빠른 시간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가 보람 있고 기쁘다"면서, "많은 다른 미아들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250여 사람의 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천태종보, 월간 금강,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미아 찾아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천태종 복지재단은 이번 결실출생의 복지 마인드를 키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계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형을 개발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의견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입양아의 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천태종복지재단 김기태 사무국장은 "미아찾아주기 사업은 사회참여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불교계 및 천태종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서 참여복지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유망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해외입양아의 가족 찾아주기 등을 통해 불교계의 복지 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원 기자 bypark@buddhapia.com

중도·등가원리 불멸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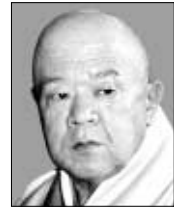


지명 조동종 종정

법계중도(法界中道)와 상대등리(相對等理)는 불생멸법(不生滅法)이니 불강대의(佛降大意)는 개시요입(開示悟入)하여 위도중생(爲度衆生)일세. 일심봉축(一心奉祝)으로 법륜상전(法輪常轉)하고 세평공영(世平共榮)이다.

화엄법계의 중도사상과 상대성이론의 등가원리는 다같이 불생멸법 법칙의 절대 진리이니, 부처님의 응화강탄 하심은 전미개오로서 제법 실상을 나누시어 무명중생을 제도함에 있다. 전 인류는 일심봉축합과 동시에 이 원리의 인연공덕이 불법은 중흥되고 국가와 세계인류는 다통과 차별심을 멈추고, 다함께 영원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이루어지이다.

자비등불 밝혀 원용세계를



일공 원용종 종정

진중(塵中)에서 연꽃이 피듯이 중생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무명을 밝히시니 천지가 불광으로 가득하고, 삼천大千 세계에 상서로운 빛과 법의 향기로 온갖 물물들이 생기가 도는구나.

어느 하나 실체가 없고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중생과 부처가 한몸이니, 오락 중생들은 더러울 때를 씻듯 온 누리에 가득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받아 마음을 밝히고 서로 존중하는 인간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각자가 자비의 등불을 밝혀 청정하고 원용한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본래 부처 오고감 있을까



해곡 열반종 종정

구름이 내리는 오색꽃비 속에 천지가 진동하고 대지가 포효하네 이땅에 나투신 부처님 부처님 한송이 한송이 일곱송이 연꽃속에 건달바가 춤을 묘음보살이 노래하며

사바세계에 오시었네. 인류에 중생 구하시려고 윤회의 수레 바퀴를 건너서 무명 장막을 걷어내니 부처와 중생이 하나요, 처처가 화엄세계네. 내 본래 부처이니 오고감이 있을손가. 당간을 세우니 가뵤빈가 노래하네.

무소유의 삶...마음의 고향 보라



도암 대승종 종정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중생 모두가 불성이 있으니, 그 자체가 바로 본래면목이라. 불지들이여! 현대문명의 이기와 탐진치 삼독에 빠져 허덕이지 말고 자기의 마음자리를 찾아 떠나보라.

맑고 고요한 물이 천만가지 물체를 뚜렷이 비추듯이 청정한 마음의 문을 열어 무소유의 삶으로 마음의 고향을 들여다 보라. 그곳이 바로 극락정토이다. 또한, 자기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본래면목을 보기위해 심안을 열어 일심정진하라. 그러다 보면 일체중생의 참나에 진여를 보고 불과를 증득하게 되리니 이것이 바로 성불이고 해탈이니라.

불법에 머물면 지혜 성취



만청 대각종 종정대행

중생이 생사고해에 빠져 있는 것을 살피어 대자비를 일으키며,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 보살도를 발하며,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에 들어가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며,

대자심(大慈心)을 발하여 일체중생을 구하며, 대비심(大悲心)을 발하여 일체중생의 고통을 헤아리며, 큰 산과 같은 마음을 내어 탐심과 진심, 치심을 다 참고 견디며, 모든 법은 머무르지 않음을 알게 되며, 이 법에 머물면 지혜를 성취하여 자비를 일으킬 것입니다.

삼라만상 법성체 무슨차별



태허 본원종 종정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이 세계에 시현하신지 3천년이다. 불자들은 세존의 탄생을 찬탄하나이다.

삼라만상의 법성체 그 무엇 차별이라. 시기질투 몰아치는 마음 속이러도 비로자나 법신이 아니나. 비릇이 없는 거기에겐 끝도 또한 없음이라. 가도가도 없는 그 생명이 무엇이 새로 있느냐. 남(生)도 죽음도 그대로 나르다.

초파일 연등꽃 하나, 둘, 셋...



해봉 해동종 종정대행

일체중생의 아들이요 일체중생의 아버지로 도솔천 아래 불미디 등산에 오셨으니 꽃피는 일곱길에 하늘과 땅이 명명되다.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가고 인간의 정신은 흔들려서 오로지 욕망만이 차가운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혜로운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혀 비추시니 사람마다 가슴속은 따뜻하여 모든 이와 다함께 나눔으로써 있었던 행복한 웃음소리는 집집마다 가득합니다. 초파일의 연등꽃이 하나, 둘, 셋이로다. 해동아! 나무 석가모니불

자리아타로 보살도 성취



정업 선각종 종정

부처님이 이땅에 자비 방편으로 화현하신 것은 자기를 잃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일은 나로 인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대하는 것마다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법을 등불로 삼아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잠든 자기를 깨워 자리아타의 행으로 보살도를 성취하여 이 세상에 참다운 불국토를 이룩합니다.

남의 행·불행을 내 것으로



송정 미륵종 종정대행

부처님 오신날, 내 안에 있는 미래장 불성을 지극한 신심으로 깨뜨려 자기 마음을 해방시키고, 영원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남의 불행의 자기의 것 인양 슬퍼하고, 남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인 듯 기뻐하고, 남에게 보시하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청정한 자성을 깨달아 부처님 나라에 태어납니다.

인연따라 살면 불국토



해안 무량종 종정대행

세상에 행복과 불행은 삼체에 내가 지은 업연이라. 팔만사천 법문 구구절절 마음 다스리는 말씀인 걸. 가슴에 내리는 단비가 독초 약초를 가리지 않듯이 부처님 탄신일을 맞아 우리 모두 삼독을 여의고 대자대비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시다. 또한 온 세계가 하나로 화평하고 남북이 통일되도록 자기 이익을 생각지 않고 남을 위한 맘 가지시다. 분열과 투쟁, 갈등과 차별이 없이 인연의 순리 따라 살 때 사회가 화평하여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2003. 4. 29 임의종단 대한불교일불선교종 <종정 장연종(봉암)스님, 총무원장 노영남(법철)스님>의 결의문에 대한

제 1 차 성명서

장연종(봉암)스님, 노영남(법철)스님이 진정한 승가라면 계속되는 거짓 비방을 즉각 중지하여야 합니다.

본 법인산하 종단 법통은 지난 1988.9.16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에서 일불 서경보 대종사의 제청으로 창종하고 제1세 종정을 역임하시다가 1996.6.25 열반 적정에 드시고 제2대, 3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현기홍(봉해)대종사께서 제2세 종정을 역임하시고, 제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김태현(무철)대종사께서 제3세 종정으로 현재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원장은 제5대에 유중순(철승)스님, 제6대는 정대홍(동봉)스님 체제가 정통 법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일불종자 열반 7주기를 앞두고 창종주 일불종자의 열반 7주기를 맞이하여 참으로 7천 일불제자들은 어떻게 일곱 들고 계신가에 설지 최인의 심정이다. 해마다 영전앞에 화랑종단과 종자님의 유지와 높으신 이상을 구원하셨다고 다짐하지만 그야말로 공염불이 되었다.
2. 장연종(임의종단 종정) 스님은 약 4년여 동안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온갖 허위와 거짓들을 동원하여 모두 9차례에 걸쳐 민·형사상의 고소를 했지만 모두가 무혐의와 기각 등으로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가 있으며 사직당국에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도 불자이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삼가고 참회하기를 기다렸다.
3. 작금 법허측은 자중지란으로 중도들이 환멸을 느끼고 지리멸렬하여 몇 사람 남지 않고 자멸직전에 있었던 마, 이런 저런 방법도 안되니가 제3의 세력(타 종단의 모 수려)의 조종에 의하여 또 다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보편적인 양식과 정서를 가진 정상인이라면 확증도 없이 재판법인이 마저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 비난하여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승려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4. 우리 법인 이사회는 가장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하나도 단합되어 있다. 그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종단 대화합을 눈앞에 두고도 제3의 세력(타 종단 모 수려)의 논리로 무산된 것도 불암, 법철스님이 기본적으로 승려로서 자질부족 때문에 소신도 불심도 없고 있다면 코앞에 허수아비 감투특이 있을 뿐이다. 우리 법인 때문에 종단분규가 있는 것처럼 전가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다. 왜 우리 탓인가? 종원중법을 위반한 장연종(봉암)스님에게 그 원인이 있으며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5. 그리고 법허측과 우리 (제)대한불교일불선교종과는 근본적으로 한 종단 한 승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제 천명하면서 차별화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 다 음 - <가> 우리 (제)대한불교일불선교종은 이미 2000.12.11 일자에 종정 김태현(무철)스님과 총무원장 정대홍(동봉)스님이 추대 임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나> 그리고 당국이 공인하는 사단법인 한국불교회의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 등록되었다. (등록일 2001.10.31 /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서정대(근스님) <다> 그러므로 법허측의 종정 장연종(봉암)스님과 총무원장 노영남(법철)스님은 우리 종단과는 하등에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종단, 임의종단 임의 확인된 관법외로 착오없이 바란다. <라> 그리고 우리 재단법인은 "대한불교일불선교종" 명칭에 대하여 업무표장등록증 상표권의 특허를 받았는 바, 법허측에 그 동안에는 묵인해 왔으나 2003. 5. 16일 이후 이 명칭의 사용을 금할 것을 통고하며 만약 계속해서 사용시에는 특허법 위반으로 제소할 것이므로 주의 바란다. (상표법에 의한 등록일: 2001. 12. 19)
 - 6. 서기 2003. 5. 7일자 「현대불교신문」 등에 공표한 법허측의 결의문을 살펴보면 모두가 사실무근의 전부 날조 과장된 허위사실인 바 법허측에게 거듭 경고 한다. 본 법인의 비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 제시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관계당국에 소명자료를 제시하겠지만, 지면상 법허측이 비리라고 제기한 것 중에 다음 <가>항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한다.
 - <가>도 법인에서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을 등을 위반하면서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주도하다가 사직당국에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들은 실로 실소를 금지 못하고 경악하는 바이다.
 - 7. 위 <가>항의 사건을 밝혀자면 인천경찰청에서 인지 수사하였고, 당시 종정은 현기홍(봉해)스님이 법인 이사장까지 겸하였으며, 총무원장 장연종(봉암)스님 당시 바로 밑에 총무원장이었던 주수용(도화) 스님과 총무원장이었던 김성환(진소) 스님이 관련되어서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장연종(봉암)스님의 작속부하가 불법 처벌받은 사람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 즉 적반하장 격으로 재단법인의 주도로서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 발표한 점에 대하여 확고한 증거가 있으므로 앞으로 허위사실에 대하여 법허측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8. 법허측이 유지재단 허가 취소 운운하는 것은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는 불자로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사직당국과 주무관청에 진위를 가려줄 것을 강력히 진정하며 제소할 것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따라서 모든 허위사실과 진실이 확인이 되면 앞으로 장연종(봉암)스님과 노영남(법철)스님은 엄청난 그 책임을 반드시 본 의가 아니던 본인의 지야 될 것이다.
 - 9. 장연종(봉암)스님과 노영남(법철)스님이 신문지상에 공표한 결의문에서 비리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는 조속히 별도의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2차 성명서와 함께 관계당국에 제출할 것이며, 오해의 소지 때문에 긴급을 요하여 제1차 성명서를 우선 발표한다.

▷ 소송 기록 사항 <
 ● **신청 또는 원고는 신명종 종단 장연종스님이며 모든사건을 고발하여 패소된 건임.**
 (1) 서울지방법원 2001년 제 2758호 / 가. 업무방해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 2001. 3. 20 합의없음으로 처리 / 2001. 6. 26 합의고 (2) 울산지방법원 2002년 제 3177호 / 대법원 2000년 불태행 제 1940호 / 가. 업무방해 나. 업무방해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 2001. 7. 20 합의없음에 대한 재항고 기각 (3) 서울지방법원 제50부 민사부 2000가 합 3588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 - 2001. 8. 28 기각(신명종 패소) (4) 인천지방법원 2001년 형제 90404호 / 가. 자적모용사문서작성 나. 자적모용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 - 2001. 12. 17 합의없음으로 처리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청 2001년 형제 700335호 / 명예훼손 / - 2001. 12. 27 / 합의없음으로 처리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청 2002년 제58058호 /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나. 명예훼손 / - 2002. 11. 26 / 합의없음으로 처리 (7) 서울지방법원 2002년 형제 102055호 / 가. 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사문서행사 / - 2002. 12. 5 / 합의없음으로 처리 (8) 서울지방법원 2002가 29730호, 285554호(반소) / 가. 건물명도등 (2002가 29730호) 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285554호 반소) / - 2003. 1. 17 2층건물명도하고 물건인도하고 반소승구기각 판결 / - 2003. 2. 20 가집행 (원고 재판인 대한불교일불선교종 이사장 김영희스님 / 피고 신명종 종단 대한불교일불선교종 총무원장 장연종 스님) (9) 제주지방법원 2002년 19886호 / 가. 업무방해명령 / - 2003. 2. 7 / 합의없음으로 처리
 불기 2547(2003)년 5월 6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불선교종 이 사 회 대 표 **김영희(해운)스님**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불선교종 총 정 **김태현(무철)스님**
 총무원장 **정대홍(동봉)스님**
 종 도 일 등